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복음주의 교회, 국가 불괴 속 시민 자유.인권 옹호 핵심 세력으로 부상



쿠바가 21세기 최악의 경제·사회 위기를 겪는 가운데, 복음주의 교회가 시민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핵심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워싱턴스탠드가 보도했다. 극심한 빈곤과 억압 속에서 복음주의자들은 공공 시위, 정치범 가족 지원, 종교 자유 침해 고발 등을 통해 정권 비판과 시민 저항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BBC는 2025년 7월 보도에서 사실상 무신론 국가였던 쿠바에서 복음주의 신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비영리단체에 따르면 쿠바 내 복음주의 인구는 전체의 약 20%로, 가톨릭 신자의 절반 규모에 달한다. 카스트로 정권과 가까운 가톨릭 신학자 프레이 베토는 “신오순절주의자들이 정치적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복음주의 교회의 영향력은 아무 군복무 인권 침해 사건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지난해 5월, 하나님의 성회 소속 루이스 기예르모 보르하스 목사 부부는 군복무 기피 혐의로 기소된 아들을 변호하다 체포됐다. 이들은 아들의 의학적 복무 불가 사유를 제시했으나 거부당했고, 법정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쿠바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복음주의 인사들이 주도한 의무군복무반대 캠페인은 군사 창고 폭발 사고로 10대 신병들이 사망한 사건 이후 더욱 확산됐다. 3월 21일 카를로스 로페스 목사는 이번 사건을 “쿠바의 영혼에 난 열린 상처”라며 교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5월 22일, 쿠바 하나님의 성회는 보르하스 목사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다른 교단들도 연대했다. 정권은 3일 만인 5월 24일 그를 석방했다. 이는 복음주의 공동체의 조직력이 실질적 정치 압박으로 작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 이후에도 예술가와 목회자들은 국회와 국가안전국의 압박 속에서 사법 제도와 종교 자유 침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로날도 페레스 로라 목사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쓰러지면, 모두가 함께 그 곁에 있어야 한다”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이사야 40:3,5)

하나님,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에서 정부의 압박 가운데 있던 복음주의 교회가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땅의 교회의 선한 물결을 통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쿠바의 교회를 일깨워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셔서 그 땅의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광야와 사막과 같은 쿠바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예수교회가 더욱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아프간 탈레반, 노예제 성문화·자의적 처형 허용

아프가니스탄에서 노예제를 성문화하고 자의적 처형이 가능한 새로운 법이 승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탈레반 최고지도자 히바툴라 아쿤드자다는 '자유인'과 '노예'를 구분하고, 사회를 종교 학자, 엘리트, 중산층, 하층민의 네 계층으로 나누어 동일한 범죄에도 서로 다른 처벌을 적용하는 형사소송법을 승인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성직자는 단순 훈계에 그칠 수 있지만, 하층민은 징역형과 체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체벌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탈레반 관리 모욕 시 태형 20대와 징역 6개월, 하나피 이슬람 법학 학파 이탈 시 최대 징역 2년형이 규정되었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더욱 가혹한 조항이 포함되어, 이슬람을 떠났다가 돌아온 여성에게 종신형과 반복적 체벌을 명시하고, 남편이 아내를 심각하게 폭행해도 최대 15일 구금만 허용한다. 또한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 폭넓은 위반 행위를 규정하여 자의적 처형을 허용하고 있다. 새 법은 변호인의 조력과 진술거부권 등 기본적 법적 보호를 삭제하고, 자백과 증언에 과도하게 의존하도록 설계됐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야고보서 2:1)

하나님,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사람의 신분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는 법을 승인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불의한 행위를 책망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법을 만들어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려 하지만, 영원 가운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길 구합니다. 아프간의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삶을 실천하여 주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 러시아서 체포된 한인 선교사, 석방돼 가택연금 상태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여성 박태연 선교사(69)가 러시아 당국에 체포·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일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3일 박 선교사가 지난달 말 체포됐으며, 그가 운영하던 종교 시설도 해산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은 박 선교사가 아동 대상 종교 캠프를 운영하고 성경 필사 활동을 진행했으며, 미국 계열 종교 단체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한국인 선교사들의 러시아 불법 입국을 도운 혐의도 제기했으나, 고발에 따른 조사인 만큼 현지 보도가 일방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후 국제 선교 단체의 보도와 온라인 청원 등이 확산되면서 박 선교사의 처우에 변화가 생겨, 최근 수사 종료 시까지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조건으로 구금 시설에서 가택 연금으로 전환됐다. 다만 혐의는 유지된 상태로,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사법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2024년 1월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백모 선교사가 간첩 혐의로 체포돼 재판 없이 2년간 구금된 상태다. 이로 인해 러시아 내 한국인 선교사에 대한 사법 조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예레미야애가 3:31-32)

하나님, 러시아에서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던 박태연 선교사님과 재판 없이 2년째 구금 상태에 있는 백 선교사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일방적인 고발과 조사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돌아보옵소서. 복음 전파로 받게 된 억울한 상황으로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예수교회로 일어나게 하소서. 그 땅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러시아 땅 가운데 더욱 선포하게 하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英 복음주의자들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 밝히는 데 자신감 얻어”



영국 복음주의자들이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데 점점 더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그 변화는 젊은 층과 흑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영국의 기독교 단체와 캠페인에 대한 인식을 6개 월마다 조사하는 ‘복음주의 신뢰도 추적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관 저지 로드가 영국 전역의 기독교인 2,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 결과 복음주의자의 약 절반(48%)가량이 2025년 4월 영국성서공회의 ‘조용한 부흥(Quiet Revival)’ 보고서가 출간된 이후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나누는 데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해당 보고서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으며, 특히 남성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교회 출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특히 젊은 연령대에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18세에서 24세는 68%, 25세에서 34세는 84%, 35세에서 44세는 77%로 높은 자신감을 보인 반면, 고령층 복음주의자 가운데 변화가 있었다고 밝힌 비율은 40%에 그쳤다.

인종적 배경에 따른 차이도 분명히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흑인 복음주의자의 4분의 3 이상(77%)은 보고서 발표 이후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백인 복음주의자 가운데서는 10명 중 4명(41%)만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저지 로드의 개러스 러셀 최고경영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조용한 부흥’ 보고서가 영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부흥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으며, 교단을 초월한 교회 간 협력을 장려하고 복음주의자들이 신앙을 말하는 데 자신감을 갖도록 도왔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조용한 부흥’ 보고서 공동 저자이자 성서공회 연구·영향력 디렉터인 리아넌 맥알리어 씨는 “전반적인 교회 출석 증가와 함께 특히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신앙에 대한 개방성과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교회가 이러한 흐름을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성경에 기초한 제자훈련에 적극 투자하고, 신앙에 대한 대화가 모든 공동체로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출처: 대데일리굿뉴스 종합).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로마서 1:16)

하나님, 교회의 기도와 영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주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대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이 조용한 부흥의 불씨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이 때에 교회가 주의 마음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곳곳에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선포되어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파키스탄 법원, 납치·강제개종 논란 13세 기독 소녀를 가해자에게 돌려보내

파키스탄 연방법원이 13세 기독 소녀 마리아 사바즈를 납치해 강제 개종·결혼시킨 30세 무슬림 남성에게 양육권을 부여했다고 3일 모닝스타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소녀의 공식 출생증명서와 불법 결혼이라는 이전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발적 개종·결혼이라는 소녀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인권단체 라아에나자트의 사프다르 차우드리는 해당 진술이 강압에 의한 진술일 가능성이 크며, 수사 과정에서 결혼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가족 측은 피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포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소녀의 나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출생 등록 시점을 문제 삼았고, 외모상 13세로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과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미성년 소녀 보호에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재심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베드로후서 2:14,16)

하나님, 30세 무슬림의 납치에 의해 강제개종과 결혼으로 고통받는 마리아 사바즈를 속히 구원하사 부모와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배후의 사탄과 육신의 탐욕의 종 되어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어린 아이를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악한 자들을 꾸짖어 주시고 저들의 추악한 행위를 멈추어 주옵소서. 파키스탄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 그 땅의 다음세대와 주를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예수교회로 일어나게 하소서.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기독교 박해 심화… 교회 340곳 파괴, 149명 살해

미얀마 군부가 2021년 쿠데타 이후 기독교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와 기독교인을 조직적으로 공격해 온 사실이 국제크리스천컨선(ICC)과 베마연구소(BRI)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BRI가 지난 1월 30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군부 정권은 교회 건물 파괴와 함께 기독교인 살해, 투옥, 지속적인 괴롭힘을 자행해 왔다. 특히 친·카친·카레나·카렌 주와 사가잉 지역에서 박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기독교인이 다수를 이루는 탄틀랑 타운에서는 22개 교회 중 21개가 파괴됐고, 주민 대부분이 피난길에 올랐다. 보고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독교인 149명이 살해되고 218명이 투옥됐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부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며 신앙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히브리서 6:18-19)

하나님, 2021년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군부가 지속적으로 교회와 기독교인을 박해했다는 내용과 함께, 여전히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증인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군부정권의 펍박 아래에서 신음하는 그 땅의 영혼들을 돌아보사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고통 중에 피난처를 찾는 교회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안위를 받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예수교회로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공산당, 기독교인들의 신앙 교제 모임도 금지… 신앙 공동체 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중국 공산당 정부가 공식 교회 체계 내에서 운영되던 기독교 소규모 신앙 공동체인 ‘교제 모임’에 대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 조치를 도입했다고 차이나에이드가 최근 전했다. 중국의 국가 종교사무 관리 체계 아래 있는 기독교 ‘양회(兩會)’인 중국천주교 애국회와 중국기독교협회는 지난 1월 27일, ‘중국 기독교 예배 장소 내 교제 활동 관리 조치’를 공식 발표했으며, 해당 조치는 국가종교사무국의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공개됐다.

이번 관리 조치는 교제 모임을 조직할 수 있는 주체, 활동 범위, 명칭 사용, 재정 운영, 인사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신자들의 소그룹 신앙 활동과 국가 권한 사이에 명확한 통제선을 설정했다. 핵심은 소규모 교제와 자발적 공동체 형성을 국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기독교인들의 교제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소규모로 모여 삶을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며 영적 유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국 내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에게 이러한 모임은 주일 예배가 제공하지 못하는 깊은 교제와 상호 돌봄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새 조치에 따르면, 교제 모임은 오직 법적으로 등록된 교회만 설립할 수 있으며, 신학교, 임시 종교 활동 장소, 개인 신자 등은 교제 모임을 직접 조직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교제 모임이 직업, 산업,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명칭 사용을 금지했다. 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돼 온 ‘직장인 교제 모임’, ‘비즈니스 교제 모임’ 등을 직접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외국인이 교제 모임에서 어떠한 관리·조직 역할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예배 장소 간 지역 간 교류 활동에 대해서도 사전 허가 절차를 의무화했다.

재정 운영 역시 전면 통제 대상이 됐다. 교제 모임이 자체 현금함을 설치할 수 없으며, 모든 재정은 교회 관리 조직이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교제 활동의 내용은 ‘정책과 법규 홍보’와 ‘교리 및 교회 규정 설명’으로 제한되며, 주요 인사 임명이나 큰 규모의 지출은 반드시 지방 종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교제 모임 규제는 해당 정책이 풀뿌리 신앙 공동체 수준까지 본격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식 교회 조직은 교제 모임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와 지도자 해임 권한을 가지며, 반복적으로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모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활동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출처: 복음기도 신문 종합).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38-39)

하나님, 정부가 나서서 성도의 교제와 모임을 막고 자신들의 기준과 통제 아래 교회를 두려는 악한 시도를 꾸짖어 주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빛 가운데 드러내 주소서. 교회를 팍박하는 자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허망한 길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중국의 교회가 이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권세자도 현재의 일도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호주 퀸즐랜드, 16주 낙태 실패 후 생존 출생 아기 방치 사망… 내부고발

호주 퀸즐랜드에서 임신 16주 낙태 시술이 실패해 살아서 태어난 아기가 병원에서 방치돼 사망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고 5일 라이프뉴스가 보도했다. 애들레이드대 법학 교수 조안나 하우 박사는 의료진 제보를 인용해 사무엘로 알려진 아기가 훌로 남겨진 채 숨졌다고 밝혔다. 하우 박사는 “이 사건은 단독 사례가 아니며, 2022년 퀸즐랜드에서 낙태 후 생존 출생한 아기 50명이 방치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우 박사는 출생 기록부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며, 임신 25주 태아 아미라가 심장에 약물을 주입받은 뒤 사산 형태로 분만됐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낙태가 의학적 이상이 없는 ‘사회적 이유’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호주는 2008년 이후 낙태를 비범죄화해 현재 모든 주에서 출산 직전까지 낙태가 가능하다. 빅토리아주에서는 2008-2020년 임신 20주 이후 ‘심리·사회적 사유’로 승인된 후기 낙태가 1,418건이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예레미야 30:19)

하나님, 뱃속의 태아와 태어난 아기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오니 생명을 살해하는 낙태가 자행되는 현장에 역사하사 죄인들을 책망하여 주소서. 생명에 대한 존엄을 잃어버리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채 살인을 죄가 아니고 합리화하는 호주의 영혼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호주의 교회를 일깨워 죄로 황폐하게 된 그 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하신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호주에 주를 향한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존귀한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탄압 논란… 유럽평의회서 종교의 자유 침해 지적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지지자들이 최근 정부의 교회 탄압에 항의하며 유럽평의회 회의장에서 아라랏 미르조얀 외무장관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영국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영국 보수당 소속 에드워드 리 하원의원은 파시냔 총리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를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교회의 관계는 2018년 벨벳 혁명 이후 악화됐으며,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패배와 이후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영토 양보를 거치며 갈등이 심화됐다. 가레긴 2세 총대주교가 정부의 외교 정책을 공개 비판한 뒤 주교 약 3분의 1이 체포됐다. 파시냔 총리는 교회 내부의 ‘반기독교적·반국가적 세력’을 바로잡아 국가 중심의 “순수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했으나, 비판자들은 이를 소련식 통치 행태의 답습이라며 정치적·종교적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사도행전 4:18-20)

하나님, 비판하지 않는 교회만을 ‘순수한 교회’라는 공산주의적 사고로 기독교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아르메니아의 정부를 진리로 책망하여 주십시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점차 교회의 벌언을 묵살하려는 당국의 위협 앞에 그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에게 맡기신 복음을 더욱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고백한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으로 아르메니아 교회를 일으켜 주셔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